



#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6期(2026.04.17) WWW.MINGHUI.ORG

한글판 1050호 minghui.or.kr



▲ 선원(神韻) 예술단이 북미와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수많은 이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다.

## 주요 내용

**【수련】** 수련자들은 명혜망 '5·13' 원고모집을 중시하길 바란다

**【수련】** 명혜망과의 인연과 최근 자료 편집에 대한 체득

**【수련】**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사실 묘사'로 바꾸면 설득력이 더 크다

**【수련】** 그 시절 우리 연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문화】** '가족애'가 원칙과 도덕적 마지노선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될 때

## 〈목차〉

###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3

###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9

### ■ 수련교류

수련자들은 명혜망 ‘5·13’ 원고모집을 중시하길 바란다 ..... 12

명혜망과의 인연과 최근 자료 편집에 대한 체득 ..... 14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사실 묘사’로 바꾸면 설득력이 더 크다 ..... 17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사실 묘사’로 바꾸면 설득력이 더 크다”를 읽은  
소감 ..... 23

그 시절 우리 연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 24

착실한 수련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다 ..... 34

정념이 신의 위력을 드러낸 세 가지 이야기 ..... 40

자신을 순수하게 하고 법에 녹아들어 법을 실증하다 ..... 46

법공부를 중시한 체험 ..... 56

### ■ 시사평론

침묵의 대가 ..... 66

### ■ 문화예술

‘가족애’가 원칙과 도덕적 마지노선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될 때 · 70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미국 선원(神韻)예술단이 2026년 다시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밴쿠버 퀸 엘리자베스 극장에서 5일간 총 6회의 공연을 펼치며 순수하고 우아한 중국 고전무용, 동서양이 결합된 라이브 오케스트라, 생동감 넘치는 3D 스크린, 그리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전통 복식으로 중화 5천 년 신전(神傳) 문화의 찬란함을 재현했다. 캐나다의 여러 국회의원을 포함한 연방, 주, 시 3급 정관계 인사들은 이를 위해 축하 서한과 표창장을 보내 선원이 20년간 걸어온 눈부신 전 세계 순회공연의 발자취를 축하하며, 선원이 지역 커뮤니티에 가져다준 영구적인 가치관에 찬사를 보냈다. 돌턴 국회의원은 축하 서한에서 “선원 공연은 예술과 문화의 보물입니다. 선량함, 용기, 충성을 보여주고, 캐나다 국민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존중 등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며 관객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라고 찬양했다.

캐나다 예비내각 고용부 장관이자 국회 ‘파룬궁의 친구’ 공동 의장인 중진 국회의원 가넷 지누이스는 축하 영상을 보내 선원이 순회공연을 위해 캐나다에 온 것을 환영했다. “이것은 훌륭하고 멋진 공연이며, 저는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서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객들이 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준 선원에 감사하며 “중국 전통문화와 그것이 대표하는 가치관을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라고 말했다. 중진 국회의원 스그로는 축하 서한에서 “선원은 무용과 음악을 통해 중화민족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자비, 용기, 자유라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관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라고 찬양하며 “여러분(선원)이 앞으로의 나날 속에서 다시 한번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라고 밝혔다.

3월 28일 저녁, 온타리오주 국회의원 마이클 구글리엘민은 토론토 포시즌스 공연예술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원에 표창을 수여하고 공연을 관람했다. 구글리엘민은 표창장에서 “선원은 우아한 무용, 감동적인 음악, 그리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사라질 뻔했던 전통을 재현하여, 하늘·땅·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 공연은 용기, 선량함, 충성, 신앙과 같은 영원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선원의 예술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호기심을 일깨우며,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미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불태워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처음 선원을 보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적 표현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치 방문처럼 사람들이 중국 전통문화의 면모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말했다.

부활절을 맞아 선원예술단의 공연은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계속 만석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도 처음 찾아왔다. 관객들은 선원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량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중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전념해 생명력 넘치는 중국을 보여준 것에 감탄했다. 코펜하겐 지역 발렌스바에크 시의원이자 전 국회의원 케네스 크리스텐센 베르트가 코펜하겐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하고 감탄하며 말했다. “매우 훌륭한 공연입니다. 제 말은 이 모든 아름답고 부드러운 색채, 그리고 무대와 스크린 배경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제작 방식

은 정말 아름답고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이것은 지극히 탁월한 공연입니다.” 그는 특히 선원 예술가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점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이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 문화에 포함된 그 진귀한 보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완전히 비인도적인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냈다는 점은 공연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목격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선원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모든 아름다움과 창조력은 그들의 강한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신체 언어를 표현하며 예술 창작을 할 자유를 부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연예계 종사 30년 가까이 된 할리우드 배우 파요가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했다. 그는 선원 관람이 ‘지극히 멋진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공연을 보며 그는 느꼈다. “우리는 모두 창세주의 일부분이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인 창조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창세주가 세상에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선원의 중국 전통문화 부흥이라는 사명은 대단합니다. 공연이 사람들의 독창성, 창조력 그리고 확고한 신앙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확실히 위대한 사명입니다.” “공연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어 생각하게 했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면 이 영감을 제 많은 작업에 녹여낼 것입니다.”

미국 선원예술단이 다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해 202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100년 역사를 지닌 히포드롬 극장

(The Hippodrome Theatre)에서 세 차례 공연을 펼친다. 공연 전날, 메릴랜드 주지사는 첫 공연 당일을 ‘선원의 날’로 선포하고 선원예술단에 주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20여 명의 메릴랜드주 하원의원도 선원에 표창장을 수여하며 20년간의 “탁월한 문화적 성취와 전 세계에 미친 비범한 영향력”에 찬사를 보냈다. 볼티모어 카운티 행정관과 볼티모어 시장도 선원에 표창장을 수여하며 선원예술단 설립 20주년이라는 “이정표가 될 이 순간”에 축하를 보냈다.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네덜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헤이그 하원 앞에서 활동을 개최해 새로 취임한 네덜란드 정부 관리 및 하원의원들에게 파룬궁(法輪功) 진상을 알렸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저지른 장기적출을 포함한 잔혹한 박해를 폭로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조치를 취해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를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수련자들은 하원 임시 사무실인 프린세스 이레네페드(Prinses Irenepad) 남쪽과 맞은편 베주이덴호우체베그(Bezuidenhoutseweg) 북쪽에 현수막을 펼쳤다. ‘파룬궁 박해 중지’, ‘파룬궁 반박해 26주년’, ‘장기적출을 멈추고 파룬궁수련자 학살을 중지하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1억 명이 심신에 혜택을 얻다’, ‘세계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이 필요하다’ 등이었다.

노란 티셔츠와 하얀 바지를 입은 수련자들은 평온한 음악에 맞춰 연공하며 사람들에게 파룬궁 공법을 시연했고, 어떤 수련자들은 근처에서 진상 전단지 나눠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하원에서 일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한 의원은

업무 틈틈이 건물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며 수련자가 건넨 전단지과 청원서를 받았다. 그는 “파룬궁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수년간 발생해 온 매우 좋지 않은 일이며, 주신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휴식을 마치고 업무로 복귀할 때, 그는 손에 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련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유명한 금광 마을 벤디고에서 연례 부활절 축제가 열렸다. 4월 5일에 열린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수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거리에 몰려들어 관람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단체는 올해 다시 초청받아 참가했다. 색채가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 팀은 순수한 동방 전통문화를 선보이고 파룬따파의 핵심 이념인 ‘진선인’을 전달했으며, 이들은 2001년부터 참가해 일찍이 퍼레이드 축제의 큰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프린스 시장은 파룬궁 퍼레이드 단체 책임자에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축제와 지역사회의 일원이 돼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우리의 전통을 알리는 데 헌신하고 참여해 주시니 정말 훌륭합니다.”

캐런 코어 부시장은 파룬따파의 진선인 이념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말했다. “진선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벤디고는 매우 따뜻하고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도시이며, 우리는 이 원칙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한 파룬따파 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찬사를 보냈다. “정말 대단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며, 이를 위해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심혈이 깃들여 있다고 믿으며, 정말 잘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4~5일 주말, 일본 파룬궁수련자들은 중부지역 아이치현 도요타시 스이겐 공원에서 개최된 제32회 벚꽃축제에 초청받아 참가했다. 행사 기간 수련자들은 공원 잔디밭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 및 ‘파룬따파가 전 세계로 널리 전해지다’라고 적힌 중국어, 영어, 일본어 현수막을 펼치고 현장에서 5장 공법을 시연하며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수련자들은 무대에 올라 요고(腰鼓) 공연과 공법 시연을 펼쳐 봄비는 벚꽃축제에 평온하고 눈에 띄는 풍경을 더했다. 주최 측 안도 이사장은 안내 방송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여러 차례 파룬궁을 소개했다. 그녀는 “벚꽃축제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이겐 공원 벚꽃축제는 3월 28일에 시작해 4월 12일에 끝납니다. 현재 파룬궁수련자들이 공원 안에서 아주 훌륭한 공법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파룬궁수련자 안징타오(安靜濤)는 2026년 3월 10일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4년 8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다. 안징타오는 2025년 5월 10일에 납치돼 이른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15일, 그녀는 다시 납치돼 구치소에 감금됐다. 2001년 2월, 그녀는 납치돼 부당하게 5년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6월에 출옥했다. 2006년 3월, 그녀는 다시 납치돼 부당하게 9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서 온갖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파룬궁수련자 한웨이(韓偉·남)는 2024년 3월 28일 장쑤성 난통시 퉁저우구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된 후 소위 ‘취보후심’ 처분을 받았다. 2025년 7월 12일 난통시 충촨구 법원은 한웨이에게 기소장을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난통시 충촨구 법원은 한웨이를 상대로 세 번째 부당한 재판을 열고 부당하게 1년 3개월형을 선고했다. 한웨이는 난통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산둥성 칭다오시 관할 핑두시의 71세 파룬궁수련자 장웨메이(張月梅)는 2025년 6월 3일 핑두시 공안국 주거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칭다오 지모 푸둥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6년 4월 2일 장웨메이는 핑두시 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8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네이멍구 츠핑시 파룬궁수련자 왕평화(王鳳華)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5년 6월 20일 츠핑시 공안국 위안바오산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원산루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2025년 12월 16일, 그녀는 츠핑시 위안바오산구 법원에서 2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6년 3월 25일 왕평화는 네이멍구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수감 박해를 받고 있다. 그녀가 부당한 선고를 받고 수감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4월 13일 오후, 왕평화와 파룬궁수련자 자이추이사(翟翠霞)는 츠핑시 위안바오산구 위안바오산진 쓰허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를 당해 위안바오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위안바오산 구치소에 부당하게 수감됐다. 왕평화와 자이추이사 sms 각각 7년형과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네이멍구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랴오닝성 테링시 창투현 파룬궁수련자 쑹푸위안(宋福元)은 2026년 3월 4일 창투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재판받았고, 3월 31일 부당하게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11월 21일, 진자진 파출소 경찰이 갑자기 그의 집에 난입해 그를 납치하고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했다. 당시 집에는 쑹푸위안 혼자였고, 그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병이 발작해 경련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 빠져 구급차에 실려 진자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쑹푸위안이 막 깨어나자 경찰은 그가 계속 병원에 남아 관찰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강제로 구급차를 이용해 그를 창투현 구치소로 보내 부당하게 감금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여전히 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그가 ‘피병을 부린다’고 모함했다. 이

어서 국보 경찰은 쑹푸위안을 창투현 검찰원, 법원에 부당하게 모함했는데, 공소인(검사)은 황동쉐(黃冬雪)였다.

쓰촨성 판즈화시의 60세 파룬궁수련자 우융충(吳永瓊)은 2024년 2월 1일 등취 공안분국 경찰에게 가택 침입을 당해 납치,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강제로 ‘취보호심’ 처분을 받았다. 이후 다투어 파출소 경찰은 또 검찰원, 법원과 결탁해 그녀를 모함했다. 2026년 2월 26일, 판즈화시 등취 법원은 우융충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최근 그녀가 1년형과 벌금 3천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3월 27일 그녀는 다시 납치돼 판즈화시 멘사완 구치소에 수감됐고, 지금까지 여전히 불법으로 갇혀 있다.

## 수련자들은 명혜망 '5·13' 원고모집을 중시하길 바란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제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5·13' 원고모집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5·13' 원고모집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파룬따파(法輪大法)의 훌륭함을 알리는 것으로, 바로 진상을 알리는 것

대법제자는 세 가지 일을 잘해야 하며, 진상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채택 여부를 떠나 진상을 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협력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진상을 알리는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채택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큼니다.

명혜망은 수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인권 단체, 각국 정부 기관의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룬따파의 훌륭함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들 독자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부 좋은 글은 각종 명혜망 정기간행물에 선정돼 진상 알리기 소재로서 국내외 수련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릴 때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어떤 글은 해외 대법제자의 매체(수련자들이 운영하는 1인 매체 포함)에 채택돼 관련 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방면에서 진상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글 한 편이 이렇게 많은 매체에 전재된다면 조회 수가 얼마나 많고, 구독률이 얼마나 되

며, 그 역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법제자로서 당연히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이 일을 잘 해내야 합니다. 중생구도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파룬따파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며, 구원해주신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 2. 이 일을 잘하는 것은 자신의 수련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와 중생의 관계는 서로 구원하는 관계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쓴 이야기를 본 후 파룬따파의 훌륭함을 인식하게 되고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만 하면 신(神)께서는 그에 상응해 그들의 업력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대법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대법제자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는 동시에 좋은 일을 한 것이며, 아울러 자신의 사전(史前) 서약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큼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서로 구원하는 관계의 한 가지 의미입니다. 동시에 글을 쓰는 과정은 자신을 정진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번 정법 수련의 기회와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과정입니다!

일부 수련자들이 ‘5·13’ 원고모집에 글 쓰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저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써서 수련자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니, 시간을 내어 서둘러 투고에 참여해 자신의 수련에 너무 많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체득이라 층차가 한정돼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자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혜망과의 인연과 최근 자료 편집에 대한 체득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999년 박해가 시작될 무렵부터 저는 진상 자료와 신문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 곧바로 명혜 항목에 합류했고, 그렇게 25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가끔 ‘나는 왜 명혜 항목에 참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부님께서 몇 차례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그중 비교적 대표적인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에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제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치 이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 듯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마 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걷고 있던 수련생도 그녀의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이는 제 아이보다 나이도 더 어리고 체구도 작아서 제가 우리 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진상 자료를 만드는 이 방면에서 제게 사명이 있으며, 아마 사전(史前)에 이미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음을 일깨워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사부님께서서는 제게 게으름을 피우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일을 하게 하며 저는 편안한 일을 하려 한다는 점도 일깨워주셨습니다.

전염병 기간에 뉴욕 미들타운의 다른 한 항목에서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그곳에 가서 일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가족 수련생도 제가 가기를 바랐고,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속에 많은 수련생이 있었고, 미들타운 그 항목의 협조인과 구성원들이 잔디밭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의자를 당겨 앉으려는데, 우리 항목 이 팀의 협조인과 장기간 명혜 업무에 참여해 온 다른 한 수련생이 저를 불러 세우며 자기들과 함께 앉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들을 따라 지면보다 높은 좁은 돌 위에 앉았는데, 방금 전의 그 팀을 등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 본 앞쪽에는 줄지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햇볕 아래 노출된 채 우리를 등지고 앉아 있는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앉아 강한 햇볕을 쬐고 있는 수련생들은 중국 수련생들이고, 나무 그늘 아래 편안한 환경에 있는 수련생들은 해외의 다른 항목 수련생들이며, 우리의 이 항목(명혜)은 지극히 특수하다는 것ですよ. 우리는 비록 직접 시멘트 바닥에 앉아 강한 햇볕을 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며, 심지어 업무 성격도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항목은 사람이 아주 적어서 딱 한 줄이었습니니다. 이 꿈은 제 사명이 명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1년 전, 또 어떤 수련생이 제게 다른 도시로 이사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법회가 끝난 뒤 대규모 인원이 큰길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명혜 항목 협조인과 우리 팀의 다른 수련생이 저더러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불렀고, 이에 우리 작은 무리는 함께 옆의 좁은 산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부님께서 우리 항목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여야 함을 일깨워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해 초기부터 현재까지, 처음에 해외 뉴스를 편집하던 데서 이후 진상 자료 편집으로 전환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자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항목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법에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대법이 널리 전해지는 기간에 중국인들의 근원은 모두 평범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엄청난 용기를 내어 내려왔으므로, 우리의 책임은 사부님을 도와 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진상 자료를 제작하는 책임이 막중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영광을 안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대법제자들은 모두 명혜망의 진상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제작하는 자료의 질과 좋은 사람 구하는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너무나 핵심적입니다.

비록 저 자신이 이 점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자주 일반인의 사소한 일들에 얽매어 마음이 분산되곤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 점차 그 신성한 느낌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무감각해져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심각한 가정 고난으로 인해 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 일을 잘 해낼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진상 자료를 제작할 때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떻게 관념을 돌파해 대법 진상을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똑똑히 알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동안 저는 대법 진상이 좀 지루하다고 느껴 일반인들의 핫이슈 뉴스를 섞어 넣어 일반인의 흥미를 끌어올리고자 했고, 이로 인해 제가 주관하는 이 자료의 방향이 명혜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편집장의 교정 아래 저는 제 생각을 바로잡아 대법 자료를 더욱 순정하게 만

들었고, 파룬궁 진상만 알린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표현 방식과 각도를 사용해 자료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 방면으로 저는 아직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사회가 요동치고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대법 진상을 이해하는 것만이 그들 생명의 출로임을 보게 할 것인가가 우리 팀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반인 속의 기술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함을 인식했습니다. 편집자로서 저는 제 문장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미술 편집, 사진 선택 등 방면에서의 심미안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란 쉽지 않으며, 어려움이 늘어나고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도 그에 따라 향상되어야 합니다.

##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사실 묘사’로 바꾸면 설득력이 더 크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우리 명혜망에는 수많은 파룬궁수련생 박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많은 글에서 ‘불법 체포’, ‘불법 납치’, ‘불법 가택 수색’, ‘불법 무단 침입’을 언급하지만 많은 수련생이 사실 묘사를 제공하지 않고 그저 직접 결론을 내리거나 성격을 규정지을 뿐입니다.

바뀌 말하면 당사자나 중국 통신원이 보도를 작성할 때든, 대중 독자가 보도를 읽을 때든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사실 묘사’로 바꾸면 글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작성법1: “악질 경찰이 대법제자의 집에 불법 난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벌였고 대법제자를 불법적으로 납치했다.”

작성법2: “제복을 입지 않고 수색 영장 제시를 거부한 3명의 요원이 민가에 난입해(남성 3명, 여성 1명이며 나이는 30~40세 사이로 보임) 압수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채 컴퓨터 2대를 가져갔고 당시 요리 중이던 리 씨를 강제로 자가용 차량에 태웠으며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위의 두 가지 작성법 중 어떤 것이 ‘내부적인 억울함 호소’에 속하고 어떤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성을 느끼게 할까요?

현대 독자는 더 이상 만들어진 결론을 주입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세부 사항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보도에서 진상을 더 잘 알리고 진상이 더 잘 전파되게 하려면 ‘불법 체포’를 유일한 논거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독자는 강한 정치적 색채나 종교적 색채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격을 규정하는 말’(예를 들어 ‘납치’, ‘모함’ 등)에 대해 자연스러운 방어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술을 할 때도 그들의 눈에 논리와 사실의 연관성이 성립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합법적인 절차의 ‘체포’는 반드시 일련의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법 집행의 주체와 신분증(신분의 합법성)

법 집행 직원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경찰증’을 제시해 자신의 신분이 합법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구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구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찾아온 사람들이 제복을 입지 않았고 경찰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또는 제시를 거부했으며) 어떠한 법률 문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갔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건의 ‘불법’적인 속성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대응하는 법규를 정확하게 지적해 참고 정보로 삼을 수 있다면 관심 있는 독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소환과 구류 시한(시간의 합법성)

법에서는 소환 시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형사 소환이나 구인이 지속되는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해 구류나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승인을 거쳐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칙적인 구금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적인 소환의 형태로 구금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변칙적인 구금’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장에서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보도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로써 ‘불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당사자가 파출소 철제 의자에 48시간 이상 억류돼 있었고 그 기간에 어떠한 구류 증명서도 받지 못했으며 심문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풀려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 묘사에 속합니다. 만약 단지 ‘불법 납치’, ‘불법 구류’라고만 말한다면 독자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매우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이라고 생각해 읽고 싶은 마음을 잃을 것이며 당신을 도와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 3. 가족 통지 의무(알 권리의 합법성)

법에서는 형사 구류나 체포 조치를 취한 후에는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특정 국가 안보 위해 및 테러 활동 범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해 구류 이유와 구금 장소를 알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로써 ‘불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당사자가 실종된 지 3일 후 가족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나서야 구치소에 감금된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동안 사건 처리 기관은 한 번도 능동적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 4. 수색과 압수(물권의 합법성)

법에서는 수색을 진행할 때 반드시 ‘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긴급 상황은 제외하되 사후에 수속을 보완해야 함). 재물을 압수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압수 물품 목록’을 3부 작성해 당사자와 목격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로써 ‘불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경찰이 민가에 들어온 후 집안을 온통 뒤졌고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여러 상자의 개인 재물을 가져갔으나 어떠한 압수 목록도 제공하지 않았고 목격자의 서명도 거부했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 5. 폭력과 문명적인 법 집행(인신 안전의 합법성)

법에서는 고문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고문과 강압에 의한 자백의 수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협,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수

갑 등 결박 도구의 사용은 도주나 흥기 난동 등의 방지에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로써 ‘불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 번호가 없는 여러 명의 직원이 60대가 넘는 당사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팔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혔고 심문 중 며칠 동안 연속으로 수면을 박탈했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련생들에게 주관적인 ‘성격 규정’에서 벗어나 ‘실증’(즉 핵심 사실 묘사)으로 많이 전환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시간(언제), 인물(경찰 번호와 신분증 유무), 문서(구류증/목록 유무), 장소(구치소 이송 유무) 등 사실을 나열하면 독자와 법률 전문가는 자연스럽게 ‘불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과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확인해 보도에서 지적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젊거나 고등 교육을 받은 수련생에게는 이러한 규범화되고 법률화된 글쓰기 방식이 그들의 논리적 습관에 더 부합합니다.

물론 글에 ‘사실 묘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부 일반 독자는 여전히 “당신이 말하는 이런 세부 사항들이 진짜일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지 문자의 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영상 또는 제3자의 증거가 있다면 더 많은 독자가 유보적인 태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독자는 “만약 법률 규정이 이렇게 명확하다면 왜 일선의 법 집행에서 글에 서술된 규정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

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독자는 파편화된 정보에 익숙해 있으므로 우리의 보도에서 이러한 ‘법 집행 중 위법’의 심층 원인을 짚어낼 수 있지만 상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뉴스 보도와 시사 평론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글에 속하므로 쉽게 헛갈리지 않습니다.

‘불법’ 자체가 확실한 사실이고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박해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련생은 “그런 폭력적인 체포라는 극도로 긴장된 환경에서 우리가 경찰의 성명, 경찰 번호를 전부 기억하기가 몹시 어렵고 심지어 문서를 요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상세한 사실 묘사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까?”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하자면 진상을 알리는 것은 확실히 어려우며 일반 대중의 집착에 따라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실을 묘사하려는 의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똑똑히 알리는 것인지 모른다면 또 어떻게 진상 알리기를 최대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완벽히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식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련생은 “박해 자체가 사악한 것이고 중국공산당(중공) 자체가 아예 법률을 따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자면 소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속인 차원의 이치이고 그 위에 비로소 양심과 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차원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악을 떨게 하고 해당 경찰의 양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며 보도를 읽는 독자가 진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컨대 세속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약자)에서 ‘목격자’와 ‘기록자’(강자)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박해 반대 글에는 사실이 있고 요점이 있어야 하며 논리가 매끄러워야 합니다. 독자 스스로 당신이 말한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해야 그들이 거리감이 아닌 정의감을 느끼게 되며 마음속으로부터 진선인(眞·善·忍)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고 인정하며 대법제자의 박해 반대 용기와 끈기에 찬성할 것입니다.

##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사실 묘사’로 바꾸면 설득력이 더 크다”를 읽은 소감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사실 묘사’로 바꾸면 설득력이 더 크다’라는 이 글은 ‘진상 알리기’의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을 결합해 ‘이성적인 박해 반대’의 전문적인 경로를 제공했으며 진상과 대중 독자 사이의 거리를 크게 좁힐 수 있게 해줬다.

이러한 ‘주관적인 단정’에서 ‘사실 묘사로 말하기’로의 전환은 사실 내향적인 표현에서 외향적인 전파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는 진상에 더욱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기록자가 이 과정에서 더욱 냉정하고 전문적인 강자의 자세를 유지하게 해준다.

거의 30년에 달하는 진상 알리기 경험은 우리에게 사실 묘사가 편견을 없애고 논리적 일관성이 반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이성적인 박해 반대의 힘은 종종 단순한 외침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욱 꿰뚫는다.

현장 상호작용과 사후 조사 및 글쓰기 전에 우리 중국 수련생과 명혜망 통신원은 자신에게 간단한 ‘사실 보도 자가 점검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성별과 대략적인 인원 및 대략적인 나이를 기록했는가?
- 상대방이 제복을 입었는지 유효한 직업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기록했는가?
- 상대방이 법률 문서(수색영장/구속영장/정확하고 완전한 물품 목록)를 제공했는지 기록했는가?
- 구체적인 현장 동작과 언어 묘사(예를 들면 집안을 뒤집어엮음, 강제로 들고 감, 가족의 서명 거부 등)가 있는가?

약간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의 반(反)박해 효과가 더 좋아지고 진상 전파 효과가 더 좋아지기를 희망한다.

## 그 시절 우리 연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글/ 베이징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초기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로서 운 좋게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중국에 널리 전해지는 성황을 목격했다.

그 평화롭고 자유롭게 수련하던 세월은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우리 연공장의 자원봉사 보도원은 1994년 사부님의 지난(濟南) 설법반에 참가했던 오래된 대법제자였다. 처음에는 그녀 혼자

연공했는데 나중에는 가족들도 따라 배우고 연공했으며 학교에서도 2~3명이 따라 연공했다.

나는 당시 몸에 병이 많아 장기간 집에서 요양했고 가정 또한 매우 불행했다. 1995년 3월 내게 주사를 놔주던 간호사가 파룬궁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파룬궁은 불가 수련 대법으로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따라 수련을 지도하며 5장 공법은 간단하고 배우기 쉬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인생에 낙담해 수련을 무척 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너무나 배우고 싶어졌다. 당시 3월 말이었는데 그녀는 내게 어디로 가면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을 수 있는지 알려주며 이미 이틀이 지났다고 했다.

저녁에 어떤 할머니가 나를 학교 노동조합의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다. 1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수련생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처음 법을 들었을 때 나는 에너지장이 매우 강함을 느꼈고 온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좋지 않아 몸에서 찬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전법륜(轉法輪)’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감기에 걸린 듯했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도 했는데 정말로 몸을 정화하는 것이 무척 빨랐다.

사부님의 9장 설법 녹음을 다 듣고 난 뒤 다들 느낌이 아주 좋아서 보도원에게 연공을 배웠다. 연공장은 한적한 도로 위에 있었다. 한동안 지난 후 다들 직접 겪어보고 무척 좋다고 느껴 친척과 친구들에게 소개하니 정말 열이 백으로 퍼져나갔다. 연공장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이 왔고 때로는 일가족이 오기도 했다. 도로가 좁아 금세 설 자리가 없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큰 빈터로 자리를 옮겼다.

보도원은 다들 법공부를 하도록 이끄는 것을 무척 중시했다. 연공이 끝나면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틀어주었고 비정기적으로 다 함께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도록 마련했는데, 장소도 작은 회의실에서 큰 회의실로 바뀌었다. 1999년 이전에는 자주 대강당에서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틀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러 왔기에 인원수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나중에는 원래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게 돼 학교 주변에 또 여러 개의 연공장을 만들었다.

1999년을 전후해 우리는 베이징 이화원과 원명원에 가서 단체 연공에도 참가했다. 이화원 뒷산 평지와 원명원 동문 광장에는 사람들이 짝 차 있었는데 어림잡아 1천 명은 되는 듯했다. 연공 음악이 울리자 다들 조용하고 가지런히 서서 연공했는데 평온하고 상서로웠으며 에너지장이 매우 강하고 장관이었다. 내 온몸은 뚱뚱 떠 있는 듯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잡념도 없이 오직 법에 용해된 기쁨뿐이었다. 많은 인연 있는 사람이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파룬궁을 연공하는 모습을 보고 속속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그 평화롭고 자유롭게 연공하던 세월은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또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부부가 연공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매일 저녁 밥을 먹고 나면 연공하러 나갔는데, 아내가 막을까 봐 무엇을 하러 가는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불만이 쌓여 시비를 걸며 다투고 남편은 아내에게 파룬궁을 연공하러 간다며 대법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이렇게 좋은 공을 왜 내게는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배우러 갔어요?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

에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속으로 ‘당신이 이렇게 화를 잘 내니 연공을 못할까 봐 그랬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아내도 연공장에 따라와 배우고 연공하며 대법과 인연을 맺었다.

또 다른 부부도 있었는데 남편은 원래 밀종 공법을 배웠고 아내도 다른 공법을 연마했다. 보도원 언니가 파룬궁이 이렇게 좋다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파룬궁으로 바뀌 배웠다. 그가 파룬궁을 배운 이후로 아내는 매일 그와 다뤘지만 그의 심성은 매우 높아 정말로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시드니법회 설법) 경지를 해냈고 집에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했다. 그는 대법서적을 아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는데 얼마 후 아내가 몰래 책을 보더니 정말 좋다고 여겨 파룬궁으로 바뀌 배웠다.

당시 ‘전법륜’ 책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법공부와 연공을 시작할 때 책이 없었고 그저 7일간 사부님의 설법 녹음만 들었다(앞의 이틀은 참석하지 못했다). 어느 날 연공장에서 연공을 마치고 다 함께 교류하다가 나는 그제야 ‘전법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저한테는 없는데 어디서 팔아요?”라고 물었다. 모르는 한 청년이 자신의 ‘전법륜’을 내게 빌려주어 보게 해주었는데 나는 더없이 귀중한 보물을 얻은 듯했다. 그날 밤 밤새도록 보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이 아주 맑고 졸리지도 않았다. 나는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본래 나는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했는데 책을 보고 나서야 모든 불행이 다 자신의 업력으로 초래된 것이며 인생의 의미는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됐다.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에도 나는 차마 그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그때

나는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나 혼자만 더 보고, 더 많이 보고 싶었을 뿐 남도 법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뒤 청년이 내게 “다 보셨어요?”라고 물었다. 나는 거짓말로 “아직 다 못 봤어요”라고 하고는 이틀을 더 끌고 나서야 그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법에 대한 그 갈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 지면을 빌려 이름 모를 그 수련생에게 “죄송합니다. 사심 없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고 싶다. 수련생의 이런 책을 양보하는 경지는 그 시절 사부님께서 반을 여셨을 때 오래된 수련생이 새로운 수련생에게 입장권을 양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타적인 것이었다.

나중에 연공장에서 다시는 그 청년을 보지 못했다. 알아보니 그는 신장(新疆)에서 임시로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었고 학습을 마치고 신장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정말 천 리 밖에서 인연이 닿아 법을 얻러 온 것이고 나 같은 새로운 수련생까지 도와주었으니 수련생의 그 사심 없는 경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전법륜’이 대량으로 발행돼 나도 여러 권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라고 주었다.

## 기적을 목격하다

그 시절 우리가 단체로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볼 때 여러 사람이 사부님의 법신(法身)을 보았다. 부처님의 형상에 머리카락은 짙은 파란색이었으며 장엄하고 신성했다. 연공장과 법공부 팀에서 파룬(法輪)을 본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공간의 수많은 생명이 우리와 함께 연공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가버렸다. 나도 파룬을 본 적이 있는데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으로 끊임없이 회전하며 끊임없이 색깔이 변했는데 무척 아름다웠다.

그때는 다들 아주 정진해 아침저녁으로 연공했다. 저녁에 연공을 마치면 함께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다. 주말에는 함께 법공부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 흥법했다. 우리가 함께 법공부를 할 때 천목이 열린 수련생은 보도원이 법을 읽을 때 입에서 주렁주렁 파룬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 수련생은 또 대법제자가 수련해 낸 생명체 중에 용 등이 있는 것을 보았다.

60여 세쯤 되는 한 여자 수련생이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다른 기공을 연마하다가 부체(附體, 사람 몸에 붙는 동물, 귀신 등의 영체)를 불러들여 온종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대법이 널리 전해진 뒤 그녀도 와서 법공부를 하고 연공했다. 한번은 교류할 때 그녀가 감격해하며 말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제가 처음 연공장에 와서 연공할 때 부체가 도망갔는데 커다란 뱀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몸이 좋아졌어요.”

###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적적인 효과

어느 할머니는 원래 정토종을 믿었다. 수년간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 콧속에 용종이 생겨 호흡이 원활하지 않았고 온종일 막혀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까 생각 중이었다. 그녀의 좋은 친구가 파룬공을 수련하라고 권했고 대법서적을 본 후 그녀는 대법을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연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그녀가 한바탕 기침을 하니 콧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다. 그녀가 휴지로 받아보니 고기 같은 핏덩어리였는데 코의 용종이 스스로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온 가족이 파룬따파의 기적을 목격했다.

보도원 언니는 연공 전에 부인과 낭종을 앓아 자주 피를 많이 흘렸는데 연공 후 낭종이 저절로 사라졌다.

처음 나를 데리고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으러 갔던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았다.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한 뒤 아주 빨리 좋아졌고 그녀는 매일 정성을 다해 ‘전법륜’을 필사했는데 책의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사부님의 법신과 파룬이며 책의 가장자리에서 붉은빛이 발산되는 것을 보았다.

또 대략 60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20대 때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 줄곧 약을 먹었지만 수치가 여전히 높았다. 그녀 역시 처음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볼 때 사부님의 법신을 보았다. 진지하게 법공부를 하고 연공한 지 한 달 뒤 그녀가 신체검사를 하러 가니 몸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당시 젊었지만 오랜 병을 앓는 환자여서 심장, 간, 비장, 신장, 폐 등 오장육부와 온몸이 병투성이였다. 일 년 내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호전되지 않았고 때로는 병원에 반년씩 입원해야 해서 스스로도 살고 싶지 않았다. 법공부와 연공을 한 뒤 몸이 빠르게 회복돼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으며 지금까지 30년간 약 한 알 먹지 않았다.

한 대형 파룬궁수련생 수련심득 교류회에서 어떤 할머니는 수련 후 담배와 술을 끊고 마작을 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수련했더니 나중에 생리가 다시 시작됐다고 이야기했다.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한 사례는 너무나 많고 파룬따파 수련 중에 나타난 기적적인 일도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전법륜’에 쓰인 말씀은 모두 진실하며 대법의 법력은 끝이 없으니 당신이 가서 배우고 연공하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변할 것이다.

## 명예와 이익을 담담하게 보고, 이타적인 생명이 되다

파룬따파 수련은 심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법공부 후 파룬궁수련생들은 심성이 빠르게 향상돼 도덕이 고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먼저 우리 보도원 언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녀는 매일 녹음기를 들고 와 자원해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자원해서 공법 교습을 했으며 자비로 사람들을 위해 새 경문을 인쇄했다. 나중에 법을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다들 만장일치로 비용을 나눠 내자고 요구해서야 그녀는 상징적으로 한 번 돈을 거뒀는데 아주 아주 적은 액수였다. 그녀의 집은 60제곱미터 정도였는데 매주 사람들이 법공부를 하고 교류하러 가도 그녀는 항상 열정적으로 맞이했고 한번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또 50여 세 된 남자 수련생이 있었다. 위로는 80세 된 노모가 있고 아래로는 병든 딸이 있어 가정의 부담이 무척 컸으며 자신도 출근해야 했다. 이분은 연공장에서 자원해 사람들을 위해 대법서적을 사주었다. 그때 끊임없이 새로운 수련생이 왔는데 소량일 때는 그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소에 가서 가져왔고 필요한 양이 많으면 삼륜차를 타고 가서 실어왔는데 가격은 모두 도매가여서 아주 싸다. 그 시절 그는 일 년 내내 이렇게 자원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다. 듣자 하니 명절이나 휴일이 되면 직장에서 자주 다른 사람을 대신해 당직을 섰다고 하니 정말 완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남편과 다투다가 대법과 인연을 맺게 된 그 언니는 수련 전에 신장이 좋지 않아 자주 허리가 아프고 혈뇨를 보았는데 연공 후 모두 좋아졌다. 예전에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고 속이 좁아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남과 다투었지만 수련 후 무척 선량

해지고 마음가짐이 평온해져 항상 웃는 모습이었고 말도 조곤조곤 매우 상냥하게 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길을 가다가 노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먼저 다가가 노인이 집에 가져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손녀가 유치원에 다닐 때 어떤 아이의 부모가 바빠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이 없자 언니는 일 년 내내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며 부모가 퇴근하고 데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방과 후 그녀 집에 가서 숙제를 했다. 아이 부모는 너무나 감사해 설날에 선물을 사다 주었지만 그녀는 전부 거절했다. 언니가 식당에서 일할 때 명절이 되면 먼저 집이 타지인 동료들 집에 가게 하고 자신이 대신 근무했다. 어느 해 설날에는 그녀가 열이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음에도 억지로 버티며 모두를 위해 만두를 빚었다. 직장에서 다들 그녀가 연공 후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이 1999년 ‘7·20’에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한 뒤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한마디 하려고 민원실에 가려다가 민원실을 찾기도 전에 천안문 광장에서 붙잡혀 돌아왔다. 본래 퇴직 처리를 해야 했지만 결국 강제로 그녀를 불법해고했다. 듣자 하니 직장에서는 그녀를 불법적으로 잡혀 온 뒤 4명을 전담으로 파견해 감시하며 먹고 자는 것을 같이 하게 했다. 다른 한 무리는 번갈아 가며 위협하고 회유해 수련을 포기하게 하고 전향을 강요하며 가족을 해고하겠다고 그녀를 협박했다.

당시 그녀는 커다란 고통과 압박을 견뎌야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며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었다. 크나큰 선과 크

나쁜 인내의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 아주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나중에 언니는 수련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가 불법적인 강제노동, 세뇌반 박해를 당했다. 중공은 이처럼 진선인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한다.

한 대법제자가 어느 해 직장에서 행사를 마련해 상산에 등산하러 갔다. 이 대법제자는 예전에 심장병이 있어 심방세동이 아주 심해 수년간 감히 산에 오르지 못했다. 수련 후 자신의 몸이 좋아졌으니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 산 중턱에 올랐을 때 한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일본인이었고 심장병이 도진 것이었다. 이 대법제자는 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을 보고는 두 말할 것 없이 어서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일본인을 업고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갔는데 도중에 너무 지쳤지만 이를 꼭 깨물고 버티며 사람을 업고 산 아래까지 내려갔다. 산 아래 의사 적시 응급처치를 거쳐 일본인은 위험에서 벗어났고 일본인은 크게 사례하겠다고 수련생에게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했다.

이 일본인이 어찌 알았겠는가, 그를 구해준 사람 역시 심각한 심장병 환자였다는 것을.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거운 사람을 업고 산을 뛰어 내려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대법제자는 일본인에게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중국인이고 파룬궁을 연공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제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빨리 뛰었기 때문에 수련생의 다리는 오랫동안 아팠지만 심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 대법제자는 직장에서 일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하며 남을 돕기 좋아했고 명예와 이익을 담담하게 보았다. 매년 선진 평가를

할 때면 그는 늘 1등이었지만 그는 항상 사양하며 스스로 남에게 양보했다. 나중에 상사가 말했다. “당신도 양보하지 마, 이 자리를 누구에게 주든 다들 승복하지 않아, 당신이 제일 적합해.”

한 심득 교류회에서 어떤 수련생이 말했다. “외국에 캐나다[중국어로 자나다(加拿大)]가 있다면 중국에는 ‘다자나(大家拿, 다 함께 가져가다)’가 있어요. 안 가져가면 손해라는 뜻이지요.” 공적인 물건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이 수련생은 대법을 배우고 연공한 뒤 예전에 집으로 가져갔던 물건을 전부 공장으로 돌려보냈다. 어떤 수련생은 예전에 부당하게 얻은 재물까지 모두 돌려주었다. 대법제자는 참으로 탁세의 맑은 연꽃이다.

감동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더는 쓰지 않겠다.

## 착실한 수련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대략 2년 전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수련생이 제게 대법제자는 모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야 하고 각자의 좌석이 지정돼 있어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막이 오르고 상영이 시작되자 저는 상영되는 화면 속으로 들어간 역할을 맡은 배우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새하얀 백사장과 새파란 바닷물이 있었고 등 뒤에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색이 변하더니 바닷물이 순식간에 검게 변해 격렬하게 뒤척였습니다. 해수면이

급격히 높아지며 거대한 파도가 백사장을 덮쳤고 저는 얼른 옆 사람과 함께 호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는 도중 빠르게 차오르는 해수면이 거의 우리 등 뒤까지 쫓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바닷물은 이미 많은 사람을 집어삼켰고 천지는 어두컴컴했으며 바다 위에는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이 뻔뻔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 꼭대기 층 발코니까지 달려갔을 때 밀려온 검은 파도는 이미 제 무릎까지 찼습니다. 이때 단 두 사람만 남게 됐는데 우리 등 뒤에는 작고 높은 축대가 있었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사다리가 그 축대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서 올라가세요. 제가 붙들어 드릴게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은 순식간에 다시 맑아졌고 바다 위의 거대한 소란은 곧바로 평온해졌으며 바닷물은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신기한 점은 바닷물이 빠진 뒤 원래 물 위에 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바다에서 해안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위는 원래와 같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저 새파란 바닷물이 더 맑아지고 하늘이 조금 더 투명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림 속 사물은 변하지 않았지만 겉보기에 원래 색채보다 투명하고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무한한 위력과 홍대한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정법은 전후 1초 차이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도태돼야 할 그토록 많은 생명이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사심이 없어야만 자기 세계의 중생을 구해낼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임을 더

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편적으로 깨달아 사심이 없다는 것은 생사의 관건적인 순간에 살 기회와 희망을 남에게 남겨주는 것이라 여겼고 저는 이 점을 굳게 기억했습니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아주 완고한 물질에 직면해야 할 때 저는 사심이 없는 경지를 닦아내는 것이 어찌 생사의 관건적인 순간에 내리는 그 한 번의 선택뿐이겠는가 하고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수련인에게는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어떻게 ‘사심’을 잘라 버리는가로 더 많이 체현됩니다. 표면적이고 직관적으로 식별하기 쉬운 ‘사심’에서부터 생활의 많은 세부 사항에 박혀 무의식중에 흘러나오는 ‘사심’에 이르기까지 사심 역시 거친 입자에서 미세한 입자에 이르는 층층의 나타남이 존재합니다.

저는 ‘사심’이 제 생활의 모든 방면에 체현됨을 발견했습니다. 수련생과 교류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관점과 인식을 수호하려 하는데 이것이 사심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늘 자신도 모르게 편안하게 넘기고 싶어 하고 시련을 괴로운 일로 보며 사람의 이해를 고수하는데 이것이 사심입니다. 집에서 어린 손자가 제 희망과 요구대로 하지 않을 때 조급해하며 화를 내는데 이것이 사심입니다. 제게는 고정된 생활 리듬이 있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매우 수호하며 매사를 순서대로 빈틈없이 하는 것이 이미 성품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괴로워합니다. 늘 대법이 우선이 아니라 고유한 방식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것이 사심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 의식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을 지금 인식한 법리로 가늠해 보면 모두 사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더 나아가 인식한 바는 ‘사심’이 모든 사람 마음과 사람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념, 성품과 사람의 생각, 사람 마음은 모두 자신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며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사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에게 사심이 있는 것은 매우 가련한 일이며 ‘사심’의 통제와 지배하에 많은 죄업을 짓게 됩니다. 저는 ‘사심’이 마치 단단한 갑옷처럼 빈틈없이 저를 감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 마침내 왜 어떤 근본적인 집착은 그토록 제거하기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수련은 마치 일종의 곤경에 빠진 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패된 물질을 제거해 경지가 높아지기를 갈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집착과 욕망에 지배당한 마음이 완고하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셀 수 없이 여러 번 사람 마음에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나 새로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자신이 수련할 재목인지 의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부님과 대법을 믿었기에 저는 매번 다시 확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본능이 바로 사심임을 압니다. 수련 과정에서 저는 이 마음, 저 마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생을 겪을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용기와 끈기로 칼날을 안으로 향해 자신을 수련하며 마음을 고생스럽게 하는지는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실하게 사소한 부분부터 착실히 수련하고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착실한 수련(實修)’과 ‘해내는 것’이라는 수련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사람 마음을 직접 가리키는 부분에 간혀 있었습니다. 강대한 안일심이 저를 끌어당겨 마치 한 걸음 돌파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것

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안일심과 감당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의 배후 역시 ‘사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바로 그 사심이 장난치는 것이며 그 사심이라는 생명이 괴로워하는 것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줄곧 엄격하게 진수(眞修)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심에 휩싸인 크고 작은 사람 마음과 관념들이 제 일상에 가득 차 제 안일함에 의해 희고 포동포동하게 길러졌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제거하려 마음먹을 때면 이 부패된 물질들은 제 마음을 이리저리 긁어놓았습니다. 때로는 만 마리의 말이 내달리듯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을 할 때 자주 곁핥기식으로 하게 되고 끈기가 없으며 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가 최근 한동안 아주 명확하게 느낀 감촉으로 마와 부패된 물질이 어떻게 제 수련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절실히 체험했으며 저 역시 자주 패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 수련 과정에서 사람과 신의 일념 차이의 선택 중 저는 견정하게 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왜 제 정념은 자주 자신을 주재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저는 진정으로 착실한 제고를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있어야만 표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착실한 수련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늘 지름길을 가려 했고 늘 강대한 외적 요인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즉 적게 대가를 치르고 적게 고생하며 승화해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한 뒤 사악한 광풍노도와 극한의 압박에 직면해 저는 공직에서

제명되는 압력을 견뎌냈고(직장에서 공직 제명 문건을 낭독했습니다) 집안 친인척이 관계를 끊으려 하는 시련도 감당해 냈습니다. 그때는 표면적인 이런 시련이 매우 크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수련 중의 시련은 외적인 압박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내재의 업력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압니다. 생생세세 빛진 이런 빛과 사람이라는 이 층 껍데기의 구속은 마치 수많은 거대한 밧줄처럼 저를 묶어놓았습니다. 외적인 시련은 제가 확고하게 수련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고 내재된 업력의 구속을 돌파해 사람에서 벗어나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역시 수련 본질의 체현입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과정입니다. ‘사심’ 그 자체 역시 매우 높은 층차에서부터 관통해 내려온 것이기에 수련 과정에서 많은 시련이 표면에 체현되지 않고 자신 내면의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선택으로 체현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글을 시작할 때 말한 그 꿈을 보니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진정으로 해내길 요구하시는 것은 착실한 수련 속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심’이라는 층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건적인 순간에 사심 없이 선택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생스러운 제도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점차 인식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한 수련을 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저항이 매우 크지만 제 결심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커지고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집착과 욕망을 끊어낸 뒤의 그 내면의 맑고 고요함과 자재함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련 중에서 생각이 바른 것과 매번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며 행동으로 해내어 법의 기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합격한 수련입니다.

개인의 약간의 얇은 깨달음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념이 신의 위력을 드러낸 세 가지 이야기

글/ 중국 안후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50여 년간 의사로 일한 산부인과 주임의사였으며 올해 이미 90대가 된 노인입니다. 1996년에 기쁘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얻었으나 제 업력이 크고 깨달음이 부족해 부딪치고 넘어지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정념이 신위를 드러낸 세 가지 이야기를 써서 수련생과 나누려 합니다.

### 이야기 1

2001년 선달그믐날 오전 8~9시경 4~5명의 경찰이 우리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수색 영장을 꺼내 들고 가택수색을 하며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안국으로 납치해 사부님의 새 경문 출처를 거듭 캐물었습니다. 이 하루 10여 시간 동안 그들은 8~9명의 경찰이 번갈아 왔고 장소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제 정념은 샘물처럼 밖으로 솟아나 다양한 각도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천리(天理)와 건강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루 동

안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목이 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았고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파출소 소장과 공안국 사무실 주임만 있을 때 저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탄압은 현행 정책과 법률에 대조해 봐도 모두 틀렸으며 입장과 원칙에서 큰 잘못입니다.” 그 두 사람도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이후 남몰래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10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자백’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선달그믐날 밤 1시가 넘자 시 공안국장과 위생국 책임자가 직접 와서 저의 사상 공작을 하려 했습니다. 국장은 일부러 가벼운 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할머니와 함께 설을 보내고 모여있네요.” 저는 즉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은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당신들 중 누가 (당신들 눈에) 죄수와 함께 모여 설을 쇠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집에 돌아가 가족과 단란하게 모이지 못하니 나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어서 날 구치소로 보내고 당신들은 모두 빨리 집에 가서 설을 보내세요. 당신들 가족이 모두 애타게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명나라의 우겸(于謙)이 지은 시 ‘석회찬(石灰贊)’을 일부러 낭송했습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세상에 청백(清白)을 남기리라”였습니다. 그는 대략 제가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을 눈치채고 제 아들(제 아들은 그의 부하직원이며 역시 경찰이었습니다)을 불러 저를 딸 집으로 보내 설을 쇠게 했습니다.

설 며칠 동안 저는 거듭 생각했습니다. ‘대법과 내 언행에는 남부끄러운 것이 조금도 없다. 대법 법리는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어떤 사회, 어떤 개인에게도 수많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

움도 없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생각 속에 중공 악당이 주입한 날조된 비방의 말을 제거해 그들이 저를 통해 대법의 아름다움과 순정함을 알고 더 이상 박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대법의 구도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세하고 전면적으로 진상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설이 지나자 그들은 또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가 왜 대법을 수련하는지, 대법이 어떻게 저를 좋은 사람이 되게 했는지부터 시작해 담담하고 진실하게 그들에게 진상을 말했습니다. 제가 왜 나가서 진상 전단을 배포하는지, 그리고 제 청원과 진상 알리기 계획 등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고 구세력 사악의 이 한 차례 박해 음모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 이야기 2

5년 전 대략 5~6월 어느 날, 제 예전 직장에서 제 아들을 불러 성(省)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가 파룬궁 박해를 계속한다는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파룬궁수련생에게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써서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적(黨籍)을 박탈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전해준 후 저는 즉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네가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앞으로 누가 널 찾으면 ‘우리 노모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본인을 찾아가라’고 말해라.”

며칠 뒤 예전 직장 상사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다 나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맑고 사고가 정상이며 행동이 자유로워 법적 보호자가 필요 없으니 내 아들을 다시는 찾지

마세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상부에서 요구하는 ‘3서’를 쓸 것인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쓰겠습니다. 하지만 요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 쓴 후 먼저 당신들에게 보고할 테니 우리 직장의 모든 상사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승낙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직장에서 또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다 썼으니 만날 시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무척 더운 어느 날 오후 예전 직장의 큰 회의실에 10여 명의 상사가 왔습니다. 처음에 상사가 저에게 발언하라고 했고 저는 먼저 성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상을 알고 선악을 알며 정사(正邪)를 분별하여 자신을 잘 보호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갖기를 바란다는 이 19 글자(중국어 기준)를 위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법률적 측면에서 헌법의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상부의 잘못된 결정을 집행해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무원법의 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선악에 따른 응보의 관점에서 고금중외 역사상 불법(佛法)과 수련인을 박해해 초래한 응보를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베이징 공안국 국장 류환신(劉傳新)이 왜 투신자살했는지 등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쓴 진상 편지를 읽었습니다. 진상 편지에서 저는 먼저 제가 왜 연공을 하는지, 이 공법이 제게 어떻게 곳곳에서 남을 위하는 좋은 사람이 되게 했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썼고, 아울러 각계의 일치된 호평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40여 년 전 저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크고 작은 여러 난치병을 앓아 진작에 죽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워 90대의 노인임에도 정신이 맑고 활기가 넘칩니다. 저는 늘 보통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건강 비결을

질문받습니다. 동시에 제 가족들도 함께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파룬따파가 전 세계 모든 곳에 전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10여 일 후 직장에서 또 저를 찾아와 제가 제출한 이른바 ‘3서’는 상부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제게 “탈당 신청서를 하나 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진작 악당에서 탈퇴했습니다. 수년간 당비를 내지 않았고 그들의 어떤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작 에포크타임스 탈당 사이트에서 탈퇴했습니다. 직장 상사들을 배려해 그들이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는 형식적으로 탈당 신청서를 하나 써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번 사악의 박해는 다시 한번 대법제자의 정념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직장에서는 다시는 저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 이야기 3

10여 년 전, 창춘(長春)에서 이 도시에 돈을 벌러 온 한 여성이 부인과 질환이 있어 진료소로 저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적게 들이고 병을 고쳐준다는 원칙에 따라 그녀를 진료했습니다. 아울러 남은 시간을 이용해 그녀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주며 좋은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약 10여 일 후 그녀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늘 허리가 아프다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초음파 검사로 그녀의 신장 안에 작은 결석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결석 배출 약을 처방해주며 물을 많이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제 진료실에 와서 큰소리로 떠들며 저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위의 여성)는 신장 결석이 없는데 제가 그녀에게 병이 있다고 하며 돈을 쓰게 하고 약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송국에 가서 매일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진료소 동료가 제게 말해주기를 며칠 전 이 두 사람이 자기 이웃이 파룬궁을 수련하다가 감옥에 잡혀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료소에서 대법 진상을 알린다는 것을 동료들이 다 알고 있었기에 동료는 그들이 아마 이 일을 구실로 저를 협박하고 다음 단계로 돈을 뜯어내려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과연 2~3일 뒤 그 여성이 진료소 사무실에 들이닥쳐 책상을 치고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결근 수당, 영양 보충비, 약값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료소 책임자가 수습하지 못하자 저를 불러 처리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간 후 냉정하고 엄숙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 씨,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왔으니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마주쳐서 도움을 청했다면 나는 노인이고 어른이며 또 그럴 능력이 있으니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이런 사기 수법으로 나를 협박하려 한다면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또 당신에게 두 마디 하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그밖에 내가 당신을 진찰한 진료 기록은 전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이 시 위생기술감정위원회에 가져가서 감정을 받으세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당신이 얼마를 요구하

든 내가 다 주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사건 이후 진료소 책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나간 후 그녀는 마치 딴 사람처럼 완전히 풀이 죽었습니다. 사무실 문밖에 앉아있던 그녀와 함께 온 그 남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30년에 가까운 수련 과정을 돌아보면 온갖 풍파와 크고 작은 각종 고난 속에서 걸음마다 모두 은사님의 보호하에, 대법 법리의 인도하에 뚫고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욱 사존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고 법공부를 잘해 제 언행이 대법의 요구를 엄격히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을 잘 수련하고 서약을 실천하며 사명을 완수해 사부님을 따라 제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 자신을 순수하게 하고 법에 녹아들어 법을 실증하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 중국에서 법을 얻고 곧바로 해외로 돌아와 수련했으며 사부님을 따라 정법(正法)한 지 27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제자 웹사이트에서 중국 및 해외 대법제자들과 함께 박해를 폭로하고 사악을 제거하며 심성을 높이고 ‘파룬파는 좋습니다’를 실증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법공부를 잘하고 더 순수하게 수련해야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사부님의 정법 노정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아래에 최근 수련 중 겪은 두세 가지 일만 교류하려 합니다.

## 대법 웹사이트를 위해 정념을 발하고 사부님의 가지를 받다

사부님께서서는 정념 발하기를 대법제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중 하나로 삼으셨고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업무 중에도 저는 교란에 부딪혔을 때 조율하는 수련생이 업무 담당자들에게 정념을 발하도록 한 제안에 여러 차례 호응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대법 웹사이트의 안전을 위해 매일 밤 30분씩 지속적으로 정념을 발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정체(整體, 공동체)이기에 전체 웹사이트 업무 담당자들을 위해서도 정념을 발해 사령(邪靈)과 난귀(爛鬼) 요소가 전체 업무 웹사이트에 가하는 사악한 교란을 배제하고 소멸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정념을 발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입정했습니다. 정념 마당의 에너지가 매우 강했고 이 일을 바르게 했으며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加持)해주고 계심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제자 웹사이트를 위해 정념을 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일정 기간 꾸준히 한 후 매일 오후 정시마다 무슨 일로 바쁘든 손에 든 일을 내려놓고 정념 발하기를 견지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정념을 발하고 나면 제 머리가 맑아져서 정상적인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 ‘정(情)’을 깨닫고 정을 담담하게 내려놓다

저는 수련 중에서 우리 수련인이 때로 갈등에 촉동되고 어렵게 느끼며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모두 정(情)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 대법의 법리로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마음이 가볍지 않아, 갈등을 해결하고 인생이 좀 더 순탄하며 편안해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정에서 걸어 나오고 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법에 녹아들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련 중인 저는 정말로 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수련을 중시하고 대법을 중시하며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사이에 일이 생겼을 때 저도 먼저 마음이 일었지만 곧바로 생각을 돌려 ‘마음을 움직이지 말자’, ‘벗어나자’, ‘대단할 것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모두 잘해 법의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며칠 후 저는 두 편의 수련생 수련 교류문을 각각 받았습니다. 수련생은 전체적으로 수련을 아주 잘했고 매우 정진했으며 세 가지 일을 아주 잘했지만 정이 비교적 무거웠습니다. 제가 한 번 편집하고 나니 아내의 죽음, 자신이 늙어감, 부부가 수십 년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것 등 짙은 정 의 요소들이 여전히 글의 행간에 남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부님께서 경문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최근에 수련생들이 쓴 몇 편의 글을 보았다. 박해로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수련생이 하는 말이 자신의 아내는 대법제자인데 어떠어떠하게 좋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그의 정을 보았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남편은 어떠어떠하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또 정을 보았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글은 속인도 보고 있을 것인데, 나도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법 중에서 속인이 본다면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것도 당신들에게 그런 조그마한 속인의 것이 아직도 남아 있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정에 의해 것처럼 좌우지되어서는 안 된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사부님의 법에서 저는 수련생 글의 문자 뒤에 있는 이런 짙은 정의 정보는 작자가 한층 더 수련해야 할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발표하면 독자에게 좋지 않으므로 글을 한층 더 편집해 작자가 정진하고 고비를 넘긴 부분은 보류하고 정의 무거운 문자는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글을 묵혀두어야 했고 그날 밤 또 오랜 시간을 들여 계속 정리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저는 다른 글을 편집하던 중 수련하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좋았는지, 그녀가 박해받아 남편이 고통을 겪은 탓에 어떻게 암에 걸리게 됐는지, 그녀가 얼마나 남편이 법을 얻기를 바랐는지를 쓴 수련생의 글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정이라는 각도에 서서 심지어 친척들에게 ‘대법만 수련하면 병(암)이 낫는다’라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아 친척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뻔했습니다. 저는 이 아내가 사람(남편)을 구하는 기점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작자는 결국에는 꽤 잘해 그저 마음을 다해 남편이 법공부를 듣도록 돕고 남편을 사부님께 맡기며 자신의 본분을 다한 채 자연스러움에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편집했을 때 저는 갑자기 의식했습니다. 왜 최근 수련생의 초고에서 이런 정의 문제를 자주 보게 되는 걸까? 그전에 저는 그저 ‘정에서 벗어나려는’ 소원과 작은 노력만 있었을 뿐인데 정말 사부님께서 제가 정을 담담하게 내려놓는 방면의 수련을 위해 제자의 업력과 정의 물질을 줄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거 편집 작업에서 저는 자주 작자의 감정 흐름을 따라가며 공감하곤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글은 몇 달 전 제가 읽어보고 초보적으로 편집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원고가 바로 그때 제가 편집했던 버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안에서 비교적 무거운 정 의 요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자신이 정을 좀 담담하게 내려놓고 정에서 좀 벗어나게 되자 편집 과정에서도 약간의 제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면에서 제고하게 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가 정을 담담하게 내려놓는 면에서 조금 제고하자 가족의 정서도 더욱 평온하고 상화로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계속 수련하며 제고하겠습니다.

며칠 전 위 내용을 쓰고 난 후 다음 날 편집에서도 정에 관한 글이 하나 있어 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편집 전 단계 작업을 할 때 저는 또 한 편의 글을 접했는데 역시 정 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몹시 감개무량했는데 사부님께서 이런 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제 앞으로 밀어주신 것은 바로 제가 정 의 표현을 점차 인식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글에서 작자는 정에 얽매었던 데에서부터 법을 외워 이성적으로 정마(情魔)에서 걸어 나와 모든 외부 교란을 소멸하고 정념정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로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을 수련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으며 정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수련생과 저 자신의 수련 경험에 근거해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속인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는 모두 정(情)이 녹아 있으므로, 당신이 사람이든, 당신이 돌이든, 당신이 식물이든, 또는 당신이 동물이든 모두 이 정에 절어

있게 된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왜냐하면, 정은 사람의 것이고 사람에게 제공한 생존환경 중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은 뛰쳐나와야 하며 사랑을 닦아버려야 하며 감정에서 생긴 집착을 닦아버려야 하는데 바로 이런 관계이다”(미국동부법회 설법) 저는 ‘감정에서 생긴 집착을 닦아버려야’ 감정이 작용하지 않게 되고 이성적이 될 수 있으며, 점차 ‘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만 자비가 있을 수 있고 법을 더 잘 실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 법에 녹아들어 법 안에서 정진하다

수련 중의 근본적인 집착에 관해 많은 수련생이 매우 중시하며 이런 교류가 많습니다. 제 개인 수련에서 저는 각기 다른 수련 단계마다 각기 다른 비교적 근본적인 집착이 수련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법리에서 말하자면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원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주셨는데, 다른 수련 단계에서 다른 고비와 시련, 그리고 사람 마음이 반영되어 나오며 우리가 깊이 안으로 찾고 착실히 수련하기만 하면 한 걸음씩 제고해 한 걸음씩 이 수련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수련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직장 업무와 수련, 그리고 법을 실증하는 항목에 쪼갰습니다. 저는 원래 뉴스를 보는 습관이 없거나 그저 불규칙하게 약간의 시간을 내어 뉴스를 볼 뿐 결코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깡징월드가 나왔을 때도 저는 그저 가끔 보면서 지지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영상을 보는 중에도 저는 수련 중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고 제 내심은 늘 ‘여가 시간을 법공부와 연공에 쓰는 것이 수련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자투리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보거나 《정진요지》를 읽거나 다른 경문을 읽는 데 썼습니다.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 순서대로 《정진요지》 한두 편을 읽었는데 매번 그 경문의 더 깊은 내포를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읽기 전에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소득으로서 곧 각종 사람의 관념을 인식하고 제거해 제가 수련의 본질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굳게 법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 미국 신임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기 시작한 후부터 저는 갈수록 흥미를 느끼게 되어 취침 전이나 밥을 할 때(원래는 모두 법을 듣고 법공부하는 시간이었음) 아이패드로 칸징월드 메인 뉴스를 보며 전체 과정을 비교적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방면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과정은 마치 사람의 일면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같았고, 또 그들의 이념이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 노릇을 하는 이념과 부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 있는 속인이 미국의 체제, 전통으로의 회귀에 대해 잘 모르는 탓에 이 역시 제가 가족에게 현 미국 내각의 일을 이야기해주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계속 봐야 해. 그래야 가족에게 서양의 전통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공산당 당문화의 영향을 버리게 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거의 매일 듣고 보았으며 남편과 토론까지 했습니다. 저는 내심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제자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은 대법이 주재하고 모든 것은 인연 관계가 있으니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돼. 법공부를 잘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하며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야만 사부님께서 내게 안내하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바로 며칠 전, 영상을 보았든 안 보았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정진요지》 한 편을 배우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공(空)인가’를 다 배웠을 때 저는 갑자기 예전 저녁에 《정진요지》를 배우던 상태로 돌아왔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읽었고 모든 글자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후 저는 머릿속으로 두 번 외웠습니다(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련인은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에 교란받지 않으며 사람의 칠정육욕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공(空)’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앞글에 썼듯이 제가 ‘정’을 담담하게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었기에 영상을 보고 세계 정세를 보는 것(저는 1인 미디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에 반드시 어떤 집착이 들어있어 저를 끌어당기고 흥미를 느끼게 하며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과 미국의 이란 전쟁 중 전술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말을 막 시작하자마자 제 이가 입안의 살을 씹었습니다. 저는 속인의 일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했고, 사부님께서 수구(修口)를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회상의 기타 일부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곧 잘 흥분하여 아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서, 내 생각에 이는 모두 속인의 집착심이다.”(전법륜) 이런 일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틀림없이 집착심입니다. 저는 즉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매일 《각지 설법》을 배웠는데 한 권 한 권 이어서 제 기억으로는 《각지 설법4》부터 현재 《각지 설법9》까지 저는 자주 비슷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사부님의 통제 속에 있으며 미래에 무엇을 원하시든 모두 사부님

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항목 업무를 끝마친 후 이미 아주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저는 또 저도 모르게 깐징월드를 클릭해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두 명 1인 미디어 수련생의 블로그가 있어서 또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이 속인 층면에서 세상일에 아는 것이 없고 견문이 좁은지라 수련생들이 중국 역사, 서양 문명, 인성, 인권, 속인에 대한 일깨움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주는 것에 매우 탄복했고 지식도 배운다고 느껴 그렇게 한밤중 1시가 넘도록 보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여전히 《정진요지》를 펼쳤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 지혜인가’였습니다. 사부님의 경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며 제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펼쳐 보여주었고 저는 갑자기 ‘무엇이 지혜인가’를 명백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보기 좋아하고 가족과 이런저런 시비를 의논하기를 좋아하며 본래 법에 녹아들어야 할 시간을 허비하는지를 명백히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속인의 ‘지혜로운 자’에게 이끌렸음을 보았고, 또한 사물을 ‘꿰뚫어 보고’ ‘간파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대법을 수련했기에 사부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간 세상일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비록 외부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 앞에서 좀 과시해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게 만드는 것도 스스로 마음속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며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현지 단체 연공 및 법공부를 하러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저는 더 많은 법리를 명백히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학업 과정에서 제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부러워했던 똑똑하고

공부 잘하며 성취가 있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려 했고 자연히 제 수련의 정념을 느슨하게 하며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때 다시 ‘무엇이 지혜인가’가 떠올랐고 제 생명 깊은 곳에서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세상에서도 천지간 만사만물을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부님뿐이시며, 인간 세상으로부터 각기 다른 공간의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은 이치에 이르기까지 가장 똑똑히 써내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부님의 《전법륜》 뿐입니다. 제 마음이 어찌 인간의 지혜에 가로막힐 수 있겠습니까? 대법제자로서 마음을 다해 법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다해 대법을 실증하는 항목을 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오직 사부님께서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만 알면 그만입니다. 그런 전쟁 일은 제 업무가 아니고 모두 인간 세상일이며 또한 신이 안배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안다고 해도 수련인의 기점에서 서서 진상 알리기에 이로우면 그만일 뿐이니 스스로 지나치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법 안에서 깨닫고 법 안에서 수련해야만 정법 노정 속에서 어떻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 하고 여기에는 자신의 명리정과 얽힌 모든 것이 포함되며, 사람 중의 지혜로운 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법 안에서 바라보며 진심으로 법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생명이 바라는 것이고 제가 수련 중에서 전념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또 사부님의 법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자들이여, 당신들은 우리가 진수(眞修)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속인

의 명(名)·이(利)·정(情)을 내려놓는 것으로, 사회의 제도가 어떠하든지 당신들의 수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집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련해야만 비로소 원만할 수 있다! 한 수련자로서 본래 직무의 일을 잘하는 외에 정치·정권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나의 제자가 아니다.”(정진요지-수련은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최근 업무와 수련 중 얻은 작은 체득입니다. 부족한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법공부를 중시한 체험

글/ 장쭈성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법공부 방면에 대한 몇 가지 체험을 이야기하려 한다.

### 1. 법공부로 명리심을 제거하다

나는 1998년 봄 대학에 다닐 때 법을 얻었는데 당시 벅찬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졸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은 법공부 장소였기에 그때부터 매일 꾸준히 법공부와 연공을 시작했다. 법공부를 할 때면 법리가 자주 나타났고 몸이 떨리거나 전류가 통하는 느낌이 자주 들었으며 사상 경지가 순식간에 넓어졌다. 법에 동화된 부분은 순식간에 격리됐고 몸은 마치 꽃이 피어나듯 한 층 한 층 변해갔다. 그래서 수련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법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법공부를 무척 좋아했다.

같은 해 여름, 나는 성도(省都) 모 대학에 가서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다. 나는 법공부를 최우선으로 여겨 먼저 법공부를 한 뒤 복습했다. 아침에는 연공장의 아침 연공에 참가했고 다행히 전 성 대학 법회에도 참가해 수련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혔다. 1999년 시험 성적이 발표됐고 나는 최상위권의 한 연구소로부터 면접 통보를 받았다. 동시에 면접에 참가한 학생 중에는 칭화대 학생도 몇 명 있어 나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당시 면접 기회를 얻은 학생들은 모두 우수해 기본적으로 다 합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기다린 것은 교수님이 걸어온 사과 전화였다. 대략적인 내용은 정책적인 이유로 우리 십여 명이 낙방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내 기분은 큰 기쁨에서 큰 슬픔으로 돌변했고 이는 내 수련 중의 첫 번째 큰 고비였다.

나는 침대에 쓰러져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인생에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이때 법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전법륜(轉法輪)’을 품에 안고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낙방한 일을 잊고 심신이 법 속에 녹아들었다. 사부님께서서는 내 몸속의 거대한 물질 하나를 제거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명리심(名利心, 명예와 이익에 대한 마음)이었다. 나는 더없이 신묘함을 느꼈다. 이 경험으로 나는 법공부의 위력을 깊이 체득했다. 또한 이후 정법수련에서 명리에 대한 시험으로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게 해줬다.

## 2. 수련 중의 근본적인 변화는 법공부에서 비롯되다

이후 나는 다른 대학의 대학원에 합격했고 2005년에 졸업한 뒤 현지에서 직장을 구했다. 나는 회사에서 대법 진상을 알리다가 얼마 안 가 신고를 당해 해고됐다. 당시 부모님(수련생)은 정법

수련으로 걸어 나오지 못해 나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셋방에 살았고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갔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한 회사에서만 면접 통보가 왔는데 그들은 차라리 학력이 낮은 사람을 원할 뿐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나에게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곤경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법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나는 갑자기 눈앞의 커다란 검은 장막이 열리고 넓고 아득한 우주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는 내 수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예전에 나는 사람의 인식 속에서 수련했지만 이제 사람의 한 막이 물러갔고, 내가 사람의 관념에서 걸어 나와 대법 속에서 수련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따뜻한 햇살이 내 몸을 비추는 것을 느꼈고 무척 편안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부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 알고 보니 그것은 사부님의 불광(佛光)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내가 사부님의 손바닥 안에 앉아 있었다! 사부님께서서는 더없이 소중하게 나를 받쳐 들고 계셨다.

다음 날 나는 세 회사로부터 채용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이르러 나는 수련에 대한 인식에서 근본적인 돌파가 생겼다.

### 3. 법공부와 법 암기는 나를 정념으로 검은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다

2004년에 어떤 수련생이 법을 외워 영원히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고 교류했다. 나는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고 이때부터 법을 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법을 외우는 것은 무척 어려워 3년이 걸렸다. 특히 매일 첫 번째 단락의 법이 가장 외우기 힘들었

다. 처음에는 마음이 번잡하고 어지러워 몇 시간을 버텨야 겨우 첫 단락을 외울 수 있었다. 어떨 때는 며칠 동안 한 단락도 외우지 못했는데 큰 고비를 하나 넘기고 나면 마침 그 단락에서 하신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렇게 그 단락을 외울 수 있었다. 아무리 외우기 어려워도 나는 포기한 적이 없었다. 제1강을 다 외운 뒤 나는 내 수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을 느꼈다. 법 암기는 나에게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법을 얻었다고 느끼게 했다.

2006년 나는 동북 지역의 한 자료점에 갔고 자료를 만들면서 법을 외웠다. 그때 나는 첫 번째로 막 제4강을 외우던 참이었는데 자료점의 A 수련생은 법 암기를 아주 잘했다. 그의 독려 덕분에 나는 법을 외우는 속도를 높였다. 법을 외울 때 많은 신기한 일이 나타났다. 어떨 때는 법 한 구절에서 배후의 법리가 드러나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고, 어떨 때는 사부님께서 허공에 앉아 내게 법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았다. 어떨 때는 내 누런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새 머리카락으로 바뀌는 꿈을 꾸었고, 한 번은 사부님의 세 개 설법반을 따라다니며 사부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꿈도 꾸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전체 대법제자들의 앞에 걸어가는 꿈을 꾸기도 했는데 평소 나는 늘 내가 뒤쳐진 제자라는 꿈을 꾸곤 했다. 첫 번째 설법을 아주 빨리 다 외우자 A는 내 변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어느 날 협조인 수련생이 휴대폰을 갖고 자료점에 왔다. 다음 날 나는 세 가닥의 밧줄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시 사부님께서 막 경문을 발표하셨기에 나는 온 힘을 다해 법공부를 했고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배웠다. 이때 몸에서 밧줄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날 현지 정법위원회는 내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나를 납치했다. 그들이 심문할 때 나는 진상을 알렸고 그 외에는 계속 법을 외우고 발정념을 했다. 이 시기에 내가 법공부를 잘했기에 법이 내 머릿속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사람의 관념을 뛰어넘었다. 사악이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직접 사람의 관념을 우회해 사부님의 이 방면의 설법을 떠올렸고 바로 사부님의 설법을 말하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그대로 실천했다.

이후 나는 내 몸이 점점 더 커져 파출소가 바로 내 발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를 감시하던 사람이 가고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나는 녹색 패딩을 벗고 빨간 스웨터 하나만 입은 채 밖에 있던 4~5명의 경찰 앞에서 파출소 대문을 걸어 나갔다. 밖은 영하 30도가 넘었지만 나는 스웨터 하나만 입고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여러 번 우여곡절 끝에 B 수련생의 집에 도착했다. 나는 수련생을 보자 가족을 만난 것 같았는데 B는 “당신은 틀림없이 특무(스파이)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망쳐 나올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슬퍼서 사부님 법상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B는 “당신이 사부님 앞에서 우는 걸 보니 특무가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숙인 친구인 C에게 나를 보냈다. B가 막 떠나자 C는 “당신은 분명 도망자일 거야,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라고 말했다. 내가 설명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법을 외우며 깨달았다. ‘나는 숙인에게 보호를 의지할 수 없다. 숙인이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야.’ C가 즉시 내게 말했다. “방금은 당신을 겁준 거예요. 괜찮으니 여기 머물러요.”

이틀 뒤 문 앞까지 경찰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을 외웠고 경찰차는 떠났다. 나중에 수련생이 말하기를 경찰은 나를 조사하기 위해 속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집을 뒤졌다고 했다. 내가 한마음으로 법공부를 했기에 경찰차는 C의 집 문 앞에서 한 바퀴 돌고는 떠나버렸던 것이다.

마침내 나는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났고 나 자신도 정념으로 고비를 돌파한 뒤 수련에서 질적인 비약이 생겼음을 느꼈다. 이 경험을 떠올려보며 내가 내린 결론은 그 기간에 법공부를 잘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마음이 법 속에 있는 수련인이라면 크고 작은 고비와 시련을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다.

#### 4. 법공부를 많이 해 한 번 또 한 번 병업 고비를 돌파하다

병업 고비 역시 많은 수련생이 어려워하는 큰 고비다. 나는 법공부를 통해 여러 차례 큰 병업 고비를 돌파했다.

한번은 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몸의 모든 모공에서 고름이 흐르고 더없이 가려웠으며 몸이 부어올랐다.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마치 내 목숨을 앗아가려는 것 같았다. 구세력은 심지어 내 귀에 대고 “이틀 안에 이 침대 위에서 썩어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한 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하며 발정념을 했다. 한때는 내 집착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나는 법공부를 많이 하면 반드시 집착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밖으로 나가 사람을 구하는 것 외에는 줄곧 법을 외웠다. 며칠이 지났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이 색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사부님께서 내 곁에서 내 몸의 부기를 빼내 주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왔다.

여기서 한번 설명하려 한다. 법공부 속에서 인식한 집착심은 무척 정확하며 집착의 뿌리와 형상까지 똑똑히 볼 수 있다.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자신을 그것과 분리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한 무더기 찾아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또 한번은 내 무릎 관절이 분쇄 골절됐고 동시에 다리의 대동맥이 짓눌려 막혔으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완전히 위축됐다. 마침 첫 번째 전염병으로 도시가 봉쇄됐을 때라 곁에는 9살 어린 수련생 한 명뿐이었고 교류할 수련생이 없었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법을 외우고 발정념을 했으며 대법을 굳게 믿었고 법이 점점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다. 매일 아침 사악은 내게 어떤 장기가 망가졌다는 가상을 만들어냈지만 나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법공부와 발정념을 했고 밤이 되면 그것이 해체됐으며 동시에 나 자신도 승화됐다. 며칠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됐고 마침내 나는 아주 깊이 숨겨져 있던 근본 문제를 문득 깨달았다. 그러자 대동맥이 뚫렸고 위축됐던 근육도 회복됐으며 마침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다. 나는 수련생과의 교류에 의존해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기 쉽고 자신의 깊은 집착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법을 철저히 배우면 그것이 숨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 경험은 한때 대법을 반대했던 남편의 가족들까지도 말문이 막히게 했다.

한번은 심장 병엽 가상이 맹렬하게 덮쳐왔다. 그때 나는 타지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고 법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매일 법을 베껴 쓰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했다. 3개월 뒤 나는 내 문제를 깨달았다. 이전에 D가 내게 E를 상관하지 말라고, 그녀가 나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E를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이 나빠졌기에 심장도 나빠진 것임을 깨달았다. 법공부를 통해 나는 내가 D를 승배한 것이 잘못이었고 그에게도 해가 됐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자 심장병 가상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병업 고비가 있었지만 일일이 쓰지는 않겠다. 하지만 매번 병업은 모두 내게 큰 틈이 생겨 구세력이 빈틈을 타서 박해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틈은 대개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럴 때 나는 “법은 일체 집착을 타파할 수 있고”(정진요지2-교란을 배제하자)라고 하신 사부님 말씀을 믿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았으며, 법공부를 많이 하고 발정념을 많이 했다. 결국 항상 법공부하는 과정에서 집착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박해를 해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의 생로병사에 대한 관념도 제거해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 **맺음말: 법공부는 반드시 마음에 와닿아야 하며 또한 법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나는 종종 속으로 법을 외워 쓸 때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조차 사라졌으며 내 몸도 보이지 않은 채 오직 사유 하나만 대법 속에서 끊임없이 동화되는 것을 느낀다. 고개를 들고서야 비로소 ‘아, 내가 셋방에 있었구나!’라고 의식하게 된다. 나는 승화가 무척 빠르다. 어떤 수련생은 법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오고 법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가령 제2장을 공부한 뒤 수련생에게 “사람의 눈은 무엇을 하는 데 쓰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마음에 와닿지 않은 수련생은 “보는 데 쓰는 거잖아요!”라고

대답할 것이고, 마음에 와닿은 수련생은 “사람에게 가상을 만들어 사람을 여기에 미혹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병업 시련을 마주했을 때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수련생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은 수련생은 그것이 병업 가상이며 실제로는 업을 소멸하는 것이거나 사악의 박해임을 안다.

나는 단체 법공부를 할 때 어떨 때는 수련생이 마치 무언가에 가로막힌 것처럼 멍하니 있는 것을 본다. 어떤 수련생은 조금 읽다가 졸고는 책을 내려놓는데 어느 단락까지 공부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통독을 할 때 아주아주 천천히 읽는데 반드시 이 구절의 법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만 다음 구절을 공부하기에 한 강을 4시간이나 읽을 때도 있다. 한번은 내가 수련생에게 “어제 무슨 법을 공부했어요?”라고 묻자 그녀는 “제4강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제4강’이라는 세 글자 외에는 어떤 법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음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나는 법은 확실히 얻기 쉽지 않으며 염두를 집중해 공부하지 않으면 법은 확실히 얻기 무척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많은 수련생이 시련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거나, 제고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구하는 효과가 좋지 않거나, 병업이 무척 무겁거나, 자기도 모르게 난법(亂法)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모두 법공부를 적게 하고 법공부를 해도 법을 얻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나는 또한 주변 중생들이 본래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진상을 귀담아듣지 않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우리 대법제자가 법공부를 해도 법을 얻지 못하는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은 모두 우리 대법제자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아예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게 된다. 나는 또 어떤 수련생은 나보다 오성이 훨씬 좋지만 시간을 다른 데 허비하고 있고, 어떤 수련생은 시련 속에서 한 강을 다 공부한 뒤 남은 시간에는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더 이상 공부하려 하지 않아 결국 시련 속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수련생은 법공부와 법 암기를 막힘없이 유창하게 하지만 표면적인 글자만 볼 뿐 외우는 법의 뜻조차 알지 못해 수년 동안 법에 대해 한 가지 인식에만 머물러 제고가 없었다. 또 어떤 수련생은 대가를 많이 치르며 주변 환경을 아주 잘 원용해 속인들도 그녀가 좋다고 말하지만 정작 법공부가 부족해 사악에게 빈틈을 타 가정에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사부님께서서는 매번 설법에서 법공부를 많이 할 것을 강조하시지만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수련생들은 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마음에 두지 않게 됐다. 그래서 나는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았을 때의 효과를 자세히 써보고 싶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공부가 마음에 와닿는 것인지 모르는 수련생들이 이를 깨달아 이때부터 마음을 다해 마음에 와닿도록 법공부를 하고 법공부를 중시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수련생들이 쉽게 들뜨는 그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진아(眞我)’로 법공부를 많이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잘 수련하고 사람을 구하는 중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개인의 수련 체험이니 법에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기 바란다.

## 침묵의 대가

글/ 류이(劉毅)

[명혜망] 침묵은 금일까?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사소한 삶의 마찰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태도를 표명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는 일종의 너그러움이자 수양이다. 이럴 때 침묵은 확실히 금이다.

하지만 최악 앞에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다. 만행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행을 무시하고 진상을 말살하는 것이며, 나아가 악을 행하는 자를 방조하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일찍이 “악이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심이 집단적 깊은 잠에 빠질 때 침묵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심연으로 향하는 완만한 비탈길이 된다.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에서 독일군 사령관의 아내는 처음에는 인근 강제수용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곳이 생명을 학살하는 악마의 소굴이고 남편의 일이 바로 이 죽음의 기계를 관리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녀는 본능적인 혐오와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이후의 나날 속에서 그녀는 우울해졌고 침묵했다. 그녀는 원래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운명은 잔인한 장난을 쳤다. 그녀의 아들 브루노가 엇갈림 속에 강제수용소에 들어가 가스실에서 죽고 만 것이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이 어머니의 뼈를 깎는 듯한 통곡은 천지간에 묻혀 그토록 미미하게 보였다. 이 울음소리에 하늘의 질책도 담겨 있었을까? 마치 하늘도 그녀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듯하

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살해당할 때 제지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구해주었는가? 최악 속에서 침묵하며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것 역시 범죄다! 유대인들이 매일 독살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의 책임도 없는가? 당신은 그들을 위해 구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당신들은 왜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부모가 지은 죄업이 아이에게 연루돼, 아이가 부모를 위해 속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인을 냉정하게 방관하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 부디 이것이 은막 위의 비극에만 머물기를 바란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종종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

2014년 3월, 네이멍구 츠핑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주임 양춘웨(楊春悅)는 암세포가 만개의 화살처럼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은 후 사망했다. 그런데 일찍이 2005년, 양춘웨의 28세 아들 양지후이(楊志慧·양춘웨가 직권을 이용해 아들을 610사무실 운전기사로 취직시킴)는 차를 몰고 대형 트럭 밑으로 돌진해 두개골이 깨지며 그 자리에서 급사했지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무사했다. 양춘웨의 아내는 이 참혹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달 넘게 울며 “우리가 무슨 덕이 부족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단 말인가”라고 말했다.[1]

어머니로서 자식을 잃은 고통의 씁쓸함과 절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인과의 논리는 무쇠처럼 냉혹하다. 하늘은 아마 그녀에게도 질책하고 있을지 모른다. 양춘웨가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해 죽게 하고 수백 건의 억울한 사건을 조작해 냈으며, 수백 명을 부당하게 형을 선고받게 하고 천여 명을 부당한 강제노동과 구류에 처하게 했을 때 당신은 무

엇을 했는가? 당신은 일깨워준 적이 있는가? 당신은 권고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막아본 적이 있는가? 살인에 대한 묵인과 침묵은 바로 죄악을 조장하고 공동의 업을 짓는 것이다. 예로부터 살인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은 천리인데, 당신의 남편은 그 수십 개의 생생한 목숨에 대해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의 죄악이 너무 크면 가족과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친다. 아들의 비극은 그의 아버지가 너무 많은 악을 행해 초래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늘 직접 악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거짓말을 자발적으로 퍼뜨리지만 않으면 자신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충분히 많지만 하면 우리 전체를 벌하지는 못할 것이며, 자신은 악행의 결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중공 악당의 기고만장함에 무관심한 것은 바로 악행을 위한 온상을 제공하는 것이며, 엄청난 거짓말을 외면하는 것은 독소가 퍼지도록 방임하는 것이다.

수십 년 전, 수백만 유대인의 고난은 전 세계의 침묵으로 인해 12년(1933~1945년) 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오늘날, 증오를 선동하려는 ‘천안문 분신자살’ 등 거짓말과 생체 장기적출 등 참혹한 만행 앞에서 수많은 중국인의 무시는 이 재앙을 27년(1999~2026년) 동안 지속되게 했다. 저 방관하는 침묵자들은 자신이 기껏해야 방관자일 뿐이며 공로도 없고 허물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홍수가 거세게 밀려올 때 신이 인정한 선량한 사람 노아만이 다행히 온 가족을 이끌고 대홍수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방주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음을 알지 못한다.

밝고 붉은 해가 비치고 맑고 밝은 세상이다. 정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도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

는 소수의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시절 나치 사령관의 아내나 양춘웨의 아내가 여성의 다정함과 정의감으로 남편에게 도살용 칼을 내려놓도록 극력 만류했다면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만약 그들이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아이들은 어찌면 지금까지도 부모 무릎 아래서 재롱을 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눈물은 시공을 거스를 수 없고, 통곡도 사라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죄악 속에서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 침묵의 대가는 악에 휩쓸려 결국 그것에 삼켜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가 무고한 이를 괴롭힐 때 제발 침묵을 지키지 말고 그에게 도살용 칼을 내려놓도록 만류하라. 그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제발 침묵을 지키지 말고 힘닿는 데까지 보호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죄악 앞에서의 매번의 침묵은 몰래 미래의 평안을 당겨쓰는 것이다. 당신의 침묵이 재앙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말고, 나아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 되게 하지 말라.

[1]

출처: '명혜주간 제1001기', 천도는 반드시 응보를 내린다 또 한 명의 중앙 610 부주임 낙마.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14/7/5/294271.html>

명혜망 보고서: 610 직원 업보 종합 서술(하) (양춘웨 사례 포함)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16/8/6/332515.html>

## ‘가족애’가 원칙과 도덕적 마지노선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될 때

글/ 기혜(起慧)

[명혜망]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애’는 사회도덕의 초석이다. ‘가족애’가 하나의 협상 카드나 무기로 취급돼 타인에게 원칙과 도덕적 마지노선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될 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 결과는 극히 심각하다.

### 1. 문제의 성격: 윤리의 도구화와 왜곡

중국 전통 윤리에서 가족애의 핵심은 ‘의(義)’다. 이른바 ‘인륜대의(人倫大義)’란 “사랑하면서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성하면서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충성한다면 그를 타일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애가 바른 믿음을 저버리거나 은사를 배신하는 등 사람에게 양심을 거스르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은 ‘가족을 불의에 빠뜨리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는 불효, 불인, 불애의 표현이다.

서양 철학의 틀에서 볼 때, 가족 윤리를 도구화하는 행위는 “사람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라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전형적인 감정적 협박(Emotional Blackmail)이며, 도덕적 납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압력을 가하는 자는 가족애를 도구화해, 가족에 대한 상대방의 애정을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데, 이는 개인의 도덕적 주체성(Moral Agency)을

침해하는 것이다.

## 2. 초래되는 결과: 다차원적인 붕괴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대개 파멸적이며, 보통 돌이키기 어렵다.

### 1) ‘피해자’에 대한 영향: 자아 가치의 파편화

도덕적 트라우마 유발: 사람이 도덕적 마지노선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때, 그는 강렬한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우울증, 불안, 혹은 인격의 평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뢰 붕괴 초래: 피해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인격에는 신경 쓰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중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인간성과 사회적 계약에 대한 철저한 실망을 초래한다.

### 2) ‘관계’에 대한 영향: 감정의 고갈과 죽음

유대감이 족쇄로 변함: 가족애는 원래 따뜻한 안식처지만, 이제는 자신의 능동성을 가두는 감옥으로 변해버린다.

방어적 소외: 남아있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는 대개 감정적으로 차단하거나 관계에서 도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며, 결국 가족 관계의 파탄을 초래한다.

### 3) ‘사회’에 대한 영향: 깨진 유리창 이론과 정의의 침식

도덕적 타락: 만약 어떤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법과 공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 4) 소집단 정의: 이는 일종의 ‘조폭식’ 윤리관을 형성하게 되는

데, 즉 ‘자기편’을 위하기만 한다면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문명사회의 법치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 3. 역사의 교훈

문화대혁명 시기, 가족애는 정치적 충성으로 대체됐고 가족 윤리는 심각하게 파괴돼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부부가 서로를 고발했다. 사회적 신뢰는 전면적으로 와해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양심과 자기 보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으며, 심지어 생존을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끊기도 했다. 이는 개인의 도덕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편적인 불신과 냉담함 속에 빠뜨렸다.

1949년 이래 중국 사회는 인륜을 파괴하는 정치 운동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공공 사무에 냉담하며,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권위를 불신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서로 해치고 이용하며, 진정성은 사라지고 선량함은 더 이상 없으며 충성심은 변질됐다.

일찍이 중국의 한 유명 웹사이트에서 “길에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야 하는가?”를 조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다. 약 13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투표 결과 62.54%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절대 부축하지 않겠다”라고 답했고, 단 4.01%의 사람들만이 “당연히 노인을 부축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여겼다. 중국 사회의 냉담함과 도덕적 타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4. 현실의 결과

‘가족애 협박’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너를 위해서야”라며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가족애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자에게 은사를 비방하고 바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족애로 가족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 역시 두려움의 피해자로서, 체제에 협박당한 후 그 두려움을 다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이 피해를 본 후 겪는 고통을 볼 때면 종종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가장 잔혹한 결과는 종종 ‘가족애 협박’을 시작한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자의 선량함과 가족애를 이용해 상급자가 지시한 ‘전향’ 임무를 달성하려는 법 집행자들은, 비록 그들이 집권자의 박해 정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지라도 똑같은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현실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귀위안성(郭元生), 전 랴오닝성 링위안(凌源) 감옥관리분국 정치위원 겸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주요 책임자는 파룬궁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자녀의 대학 진학, 공직 파면, 직함 승진, 임금 지급 중단 등의 수단으로 협박했다. 이는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1]

2003년 연말의 한 대회에서 귀위안성은 갑작스러운 소뇌 뇌간 출혈을 일으켰고, 2004년 2월 6일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향년 58세였다. “무릇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크면 기(紀, 12년)를 깎고 작으면 산(算, 100일)을 깎으

며, 산이 다하면 죽는다”라는 천리에 부합된 것이다.

량진홍(梁俊洪), 전 산둥성 페이청(肥城)시 안좌(安庄)진 무장 부장. 그는 민병을 지휘해 파룬궁수련자를 감금, 구타,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수련자의 친족 자녀는 일절 입대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사악하게 “파룬궁을 연마하면 가족이 연좌되니, 군대 가거나 대학에 갈 생각은 마라”라고 말했다. 량진홍은 2000년 5월 갑작스러운 암 발병으로 사망했으며 향년 46세였다. “산이 다하면 죽는다”라는 천리에 부합된 것이다.[2]

이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자신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겼다.

## 5. 맺음말

가족애를 이용해 가족에게 원칙과 마지노선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진정한 가족애는 서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버팀목이 돼야지, 사람을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밧줄이 되서는 안 된다.

가족애를 이용해 가족에게 신앙과 원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든, 타인의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그 사람에게 인간의 마지노선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든, 모두 가정과 사회 안정을 위한 초석인 ‘가족애’를 훼손하는 것이다.

백 년 인생에서 권력을 쥐는 것은 한때일 뿐이며,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중국에서 권력의 유효기간을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위로는 창천이 있고 천리가 다스리고 있음에랴.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나, 죽을 때는 업(業)이 몸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가족애의 핵심은 ‘의(義)’이며, 가족애가 ‘불의’를

행하는 데 이용될 때 가족애는 이미 변질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온 것은 가족애를 누리거나 가족애로 인해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 인생향해의 나침반이 되기 위함이다. 가족애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가족애를 이용해 우리를 도덕적으로 납치하려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없다.

주:

[1] 명혜망, ‘랴오닝 링위안 감옥 610 우두머리가 대법 박해로 하늘의 징벌을 받다’, 명혜망 2004-02-27.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4/2/27/68488.html>. 인용일자 2026-04-10.

[2] 중국 대법제자, ‘산둥 대법 박해 악당들이 응보를 받다’, 명혜망 2001-10-23.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1/10/23/18458.html>. 인용일자 2026-04-10.



▲ 선원(神韻)예술단이 2026년 다시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밴쿠버 퀸 엘리자베스 극장에서 6회의 공연을 펼쳤다.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연방, 주, 시 3급 정관계 인사들이 축하 서한과 표창장을 보내 선원이 지역 커뮤니티에 가져다준 영구적인 가치관에 찬사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34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037만 7624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